

# 『濟衆新編』 현존본의 서지적 연구\*

The Bibliographic Study of the Existing *Jejung Sinpyeon*

이 정 화 (Lee, Jeong-Hwa)\*\*

◁ 목 차 ▷

1. 서 론	3.1 經國堂刻本
2. 國內 板本	3.2 秋水書屋刻本
2.1 初刊本	4. 결 론
2.2 鉛活字本	<참고문헌>
3. 中國 板本	

< 초 록 >

『濟衆新編』은 『東醫寶鑑』 단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처방들을 보강하여 편찬한 의서이다. 『濟衆新編』 현존본의 서지적 분석을 위해, 국내 판본과 중국 판본으로 구분하여 각 판본별로 그 서지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실사하여 판본별 그 특성에 관하여 밝히었다. 국내에서 간행된 『濟衆新編』 초간본의 간행 기록은 1799년(正祖 23) 한 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초간본을 실사한 결과, 하나 이상의 『濟衆新編』 목판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초간본에 나타난 향약명의 한글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들어 그 차이점을 밝혔으며, 더불어 반곽의 크기, 글자의 크기와 모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를 근거할 만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실사를 통해 이본이 존재하는 것만을 증명하였다. 그 외 국내 판본으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신연환자본이 전하며 이에 대한 서지사항과 특성을 살펴 보았다. 중국에서 간행된 『濟衆新編』 판본으로는 清代인 1817년과 1851년 두 차례에 걸쳐 목판본을 간행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에 『濟衆新編』의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청판의 특징으로는 방각본이라는 것과 조선에서 간행된 초간본의 향약명 한글표기가 청판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濟衆新編』은 널리 백성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정조임금이 기획하고 실제 편찬에 참여한 문헌으로, 조선은 물론 중국에까지 전해져 목판본을 간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보존 활용되고 있는 중요 의학 문헌임을 밝혔다.

要語: 『濟衆新編』, 康命吉, 正祖

\* 본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인 “『濟衆新編』의 編纂과 刊行 및 流布에 관한 研究” 중 일부를 수정·보완·정리한 것임.

\*\*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 문헌연구센터 선임연구원(jhlee@kiom.re.kr)  
 접수일: 2010년 12월 10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Jejung Sinpyeon*(濟衆新編) is a medical book newly compiled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Donguibogam*(東醫寶鑑), and to offer prescriptions suitable for new disease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In this research, to analyze bibliographically the existing *Jejung Sinpyeon*,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of its domestic edition and an edition published in China were examined.

The domestic edition of *Jejung Sinpyeon* is known to have been published only once in 1799. But an examination of the extant prints of the first edition revealed that one or more sets of printing woodblocks for *Jejung Sinpyeon* might have been crafted. Variances in writing names of domestic medicines, and differences in the size of the frames for woodblocks and the size and shapes of the characters evidence this assumption. Without any record to confirm, only the result of an actual examination could be presented for this assumption.

*Jejung Sinpyeon* were printed with woodblocks twice in 1817 and 1851 during the Qing Dynasty, which proves high demand for *Jejung Sinpyeon* in China. Those Chinese editions were reproductions and contained exactly the names of domestic medicines recorded in the first edition published in Joseon.

*Jejung Sinpyeon* was originally planned by King Jeongjo who actually participated in compiling this book in order to make it widely used by the public. This research documents that *Jejung Sinpyeon* became well known to not only Joseon but also China where its woodblock prints were twice published, and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medical books well kept and used even today.

Key words: *Jejung Sinpyeon*, Gang Myeong-gil, Jeongjo

## 1. 서론

정조임금은 「東醫寶鑑」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복되고 빠진 부분 난해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東醫寶鑑」 간행 이후 200년의 세월동안 나타난 질병의 양상과 치료법을 포함하는 새로운 의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정조임금은 의서인 「수민묘전」을 직접 저술한 경험이 있는 임금으로 「濟衆新編」의 편찬 과정에서도 강명길에 정리해 올린 원고를 직접 살펴며 첨삭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濟衆新編」은 강명길에 의해 편찬되었으나 정조임금의 저작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의서다.

「濟衆新編」은 8권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내용을 70개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에 기술된 항목의 61%인 66개의 항목을 수용한 것이며, 권 7의 痘疹, 麻疹, 養老와 권 8의 藥性歌 총 4개 항목을 신증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는 「濟衆新編」이 「東醫寶鑑」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의미하며, 「東醫寶鑑」의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들을 보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의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東醫寶鑑」은 25권25책의 관찬의서로서 내용이 모두 완성된 뒤 간행을 명령하지만 실제 간행되기까지는 3년 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는 「東醫寶鑑」이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기란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당시 조선의 경제적 상황, 비용, 종이의 수급 등을 생각하면 「濟衆新編」 8권5책의 분량과 실용적이고 간략한 내용은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원이나 儒醫들 또, 글을 읽는 백성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였을 보인다.

또한 「濟衆新編」에는 관찬의서로는 처음으로 「약성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후 이 약성가는 「방약합편」, 「의감중마」 등 조선후기 많은 의학문헌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한의과대학의 교육현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濟衆新編」은 그 의미가 결코 작은 문헌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濟衆新編」 현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를 통해 각 판본의 차이와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濟衆新編」 현존본을 국내 판본과 중국 판본으로 구분하여

각 판본별로 그 서지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실사하여 현존 실태 및 그 규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존 『濟衆新編』의 소장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sup>1)</sup>’과 『中國中醫古籍總目』<sup>2)</sup>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연구범위는 1799년 초간본으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간행본만으로 한정한다.<sup>3)</sup> 또한 『濟衆新編』의 필사본이 국내 여러 도서관과 중국에 전하지만 그 필사연대가 불확실한 것이 대부분임으로 분석에 큰 의미가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sup>4)</sup>

## 2. 國內 板本

국내에서 刊行하여 현존하는 『濟衆新編』을 중심으로 그 판본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서지적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현존본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확인한 결과,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소장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소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기본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누락된 자료는 각종 도서목록, 관련 기관의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보충하였으며 이를 <表 1>로 정리하였다. 이 표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刊本の 발행연도 순으로 나열하고 이어 寫本の 筆寫年 순으로 나열하면서 연구범위 내에 있는 판본만을 정리하였다.

---

1)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이란 한국 고전적에 대한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고전적 소장처를 연계하여 관련기관 및 담당자로 하여금 목록 데이터 접근 및 표준화된 목록DB 구축을 용이하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2) 薛清泉 主編, 『中國中醫古籍總目』(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3) 書誌學에서 말하는 협의의 古書 연구 범위는 대한제국말기(1909) 이전까지를 말하며, 광의의 범위로는 일제강점기까지를 일컫는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일제시대 발행된 『濟衆新編』까지로 하였다.

4) 앞서 밝힌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현존하는 『濟衆新編』의 필사본에 대해 밝힌바 있음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하였으며 본고의 <표 1>과 <표 6>에서 국내·외 소장 필사본의 간략한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表 1〉 「濟衆新編」의 國內 刊本 및 필사본 소장현황

번호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	판종	대표소장기관
1	「濟衆新編」 8卷5册	康命吉(朝鮮) 奉教纂	鑄字所	1799	木板本	국립중앙도서관 의 다수
2	「濟衆新編」 8卷1册	康命吉(朝鮮) 奉教纂	大東書院	1918	鉛活字本	성대 존경각
3	「濟衆新編」 8卷1册	康命吉(朝鮮) 奉教纂	廣韓書林	1925 <sup>5)</sup>	鉛活字本	국립중앙도서관
4	「濟衆新編」 8卷1册	康命吉(朝鮮) 奉教纂	廣韓書林	1935	鉛活字本	충남대학교
5	「濟衆新編」 8卷1册	康命吉(朝鮮) 奉教纂	盛文堂書店	1935	鉛活字本	전주대학교
6	「濟衆新編」 卷7-8	[刊寫者未詳]		甲午年(1894)	筆寫本	경상대학교
7	「濟衆新編」 藥性歌抄	[景晦燕抄]		光武 7(1903)	筆寫本	서울대학교
8	「濟衆新編」	康命吉(朝鮮)		1936	筆寫本	장서각
9	「濟衆新編」	康命吉(朝鮮)		간사기 미상	筆寫本	원광대 외

〈表 1〉을 기준으로 刊行 추이를 살펴보면, 1799년 初刊本 刊行 이후 목판본의 간행은 없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8년 大東書院, 1925년 廣韓書林, 1935년 盛文堂書店과 廣韓書林 등에서 鉛活字本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대상은 앞서 연구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初刊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발행된 板本만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국내 현존본의 분석 대상은 1799년 初刊本과 鉛活字本인 大東書院 발행의 1918년 板本, 廣韓書林·盛文堂書店 발행의 1935년 板本 2종을 포함해 총 4종으로 한다. 4종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濟衆新編」의 국내 刊行 사실을 밝히고 현존 「濟衆新編」의 實査를 통해 각 板本の 특성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5) 국립중앙도서관의 청구기호 古朝 68-51의 廣韓書林 발행의 「濟衆新編」 판권을 보면, 1925년(大正 14) 초판, 1935년(昭和 10) 재판이라고 되어있다. 초판본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이 판권으로 보아 1925년 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정리하였다.

## 2.1 初刊本

『濟衆新編』初刊本の 국내 소장처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 전국적으로 20여 곳이 넘는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6)</sup> 국외 소장현황을 살펴보니, 중국이 中國國家圖書館과 中國醫學科學院圖書館 등 여러 도서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sup>7)</sup> 그 외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表 2> 『濟衆新編』初刊本の 國內·外 소장처

국가 및 지역		소장처
국내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단국대 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대, 전남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병원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등
중국	北京	中國國家圖書館, 中國醫學科學院圖書館, 中國中醫科學院圖書館, 故宮博物院圖書館, 北京中醫藥大學圖書館
	揚州	揚州市圖書館
	上海	中華醫學會海分會圖書館, 上海中醫學院圖書館, 國家科學院 上海生命科學院
	瀋陽	遼寧中醫藥大學圖書館
일본	東北	東北大學附屬圖書館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메사추세츠주	하버드 엔칭 도서관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 아시아 도서관
	하와이주	하와이 대학
프랑스	-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sup>8)</sup>

6)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또는 개인소장의 경우, 최대한 조사하였으나 필자의 역량이 닿지 않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7) 『濟衆新編』이 중국과 일본에 전해진 기록은 각종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800년 이후로 외교사절을 통해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濟衆新編』을 요구하고 있다.

8)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에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99년에 刊行된 「濟衆新編」 初刊本은 국내·외 여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濟衆新編」은 1799년 初刊本이 刊行된 이래 鉛活字本이 출현하기까지는 다른 판본이 간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종 참고자료와 사료를 조사해 보았으나 이 기간에 새로운 「濟衆新編」의 再版 또는 增補나 補正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濟衆新編」 初刊本은 반드시 한 가지로 일치하는 板本만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799년 初刊本으로 밝혀진 국내 소장 「濟衆新編」의 몇몇 판본을 실시한 결과 初刊本의 서지사항이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시한 바에 의하면, 간기가 1799년으로 같은 初刊本이지만 그 半郭의 크기와 글자크기 등 그 형태사항이 일정치 않았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도서관 소장본을 실시하여 OHP필름으로 복사하고 각 판본별로 半郭의 크기와 글자크기 등의 형태사항을 비교한 결과, 분명히 서로 다른 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은 卷8 藥性歌에 수록된 藥材의 향약명 한글표기이다. 같은 1799초간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본에서 人蓼을 ‘심’이라 표기하고, 어떤 판본에서는 人蓼을 ‘삼’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또 그 외에 梔子の 향약명 한글표기 경우에도 어떤 판에서는 ‘지치’, 어떤 판에서는 ‘지지’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濟衆新編」 初刊本의 판본이 하나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初刊本을 분석함에 있어 각 판본별로 半郭의 크기를 실시하여 그 차이점을 밝혔으며, 또 글자의 크기와 차이점을 구별하여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初刊本을 구별함에 있어, 卷8 藥性歌에 나타난 향약명 한글표기에 따라 판본명을 임의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初刊本 A는 人蓼이 ‘심’으로 표기된 판본을 의미하며 이하 ‘초간본 A’라 표시하였다. 둘째, 初刊本 B는 人蓼이 ‘삼’으로 표기된 경우이며 이하 ‘初刊本 B’라 표시하였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각 板本에 대하여 상세 분석하기로

「濟衆新編」 初刊本이 두 질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소장본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고 이를 위해 먼저 『濟衆新編』 初刊本에 대한 공통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初刊本の 공통 서지사항<sup>9)</sup>

서 명 濟衆新編  
저 편 자 康命吉(1737-1801) 奉教撰  
판 사 항 木板本  
발행사항 漢陽: 鑄字所, 1799(正祖 23)  
형태사항 8卷5冊: 四周雙邊, 半郭 23.6×16.7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二葉花紋魚尾 ; 33.3×20.5cm  
주기사항 序: 己未(1799)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臣李秉模(1742-1806)奉教謹序  
跋: 己未(1799)四月 臣康命吉(1737-1801)拜手稽首謹記

『濟衆新編』 初刊本은 위와 같은 공통의 서지사항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제시한 人蓼의 향약명 한글표기를 기준으로 임의로 판본을 나누고 그 차이점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濟衆新編』 初刊本 A - 人蓼을 ‘심’으로 표기

1799년 初刊本 소장처 중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 5곳에 소장되어 있는 『濟衆新編』을 실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 첫째, 앞서 밝힌 대로 人蓼에 대한 한글 향약명이 ‘심’으로 되어있는지 ‘심’으로 되어있는지를 조사하고 둘째, 각 판본별로 半郭의 크기를 살펴보았으며 셋째, 글자의 서체와 크기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人蓼

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濟衆新編』 初刊本을 실사하여 서지사항을 정리함(청구기호 古朝 68 13). 반각과 책의 크기는 각 소장처별로 국립중앙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음.

의 향약명이 ‘심’으로 되어있는 板本만을 정리해 ‘初刊本 A’라 하고 이를 실사하여 그 半郭의 크기와 글자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각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기초로 실사한 결과, 도서관별로 표기를 하거나 안하거나 또는 책 크기, 半郭의 크기 등의 차이를 보일 뿐 대체로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半郭과 책의 크기 부분이었으며 책의 크기는 서지적 분석에서 큰 의미가 없기에 제외하고 半郭의 크기와 글자의 차이점만을 실사를 통해 밝히기로 한다. 실사 결과, 초판본 A의 경우에도 <表 3>에서 나타나듯이 그 半郭의 크기가 각 판본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이를 위해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종씩을 그 예로 들어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는 두 소장처의 板本 비교만으로도 그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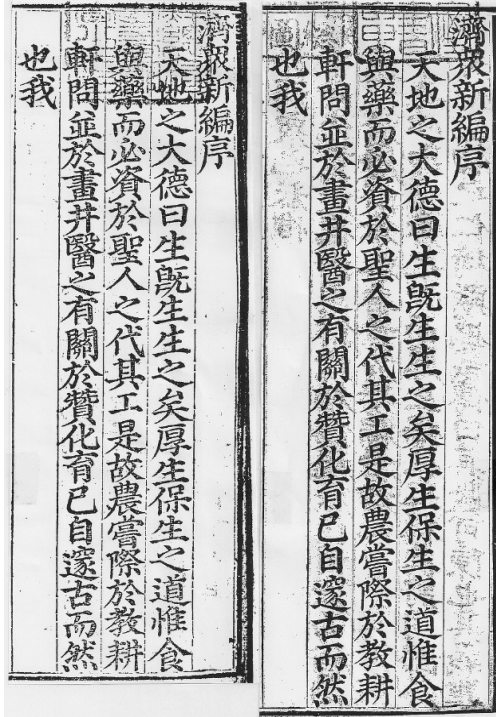
<表 3> 「濟衆新編」 初刊本 A의 판본별 半郭 크기 비교(단위 mm)

소장처	序 1면	凡例	總目	引用諸方	目錄	卷1	卷7	卷8
① 규장각 <sup>10)</sup>	242 ×167	246.5 ×167	247 ×166.5	249 ×166.5	240.5 ×166.5	236.5 ×167	241.5 ×166	241.5 ×165.5
② 국립중앙도서관 <sup>11)</sup>	238.5 ×167	242.5 ×166	241 ×167	241 ×166	235.5 ×167	236 ×166	237.5 ×165.5	236.5 ×165.5

첫째, 半郭의 크기를 실사한 결과는 <表 3>과 같으며 적게는 0.5~5mm 많게는 8mm정도씩 그 크기가 달랐다. 이로써, 初刊本 A의 경우 서로 그 판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初刊本 A는 하나 이상의 판본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면을 복사하여 동물로 축소한 후 그 차이점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를 근거로, 初刊本 A에 해당하는 「濟衆新編」의 판본은 하나 이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725.

11)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766-2.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左)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右)의 卍郭 크기 비교

둘째, 글자의 서체와 크기 부분인데 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예를 보여 그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림 2>의 예시처럼 동일한 初刊本 A임에도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 ‘贊’의 서체 및 글자 크기		● ‘火’의 서체 및 글자 크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그림 2> 初刊本 A의 서체 및 글자크기 비교

이는 앞서 半郭의 크기를 통해 입증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글자의 서체와 크기를 분석한 결과도 같은 初刊本 A에 해당하는 「濟衆新編」이라 할지라도 그 板本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半郭의 크기와 글자의 서체와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初刊本 A의 「濟衆新編」 경우 하나 이상의 板本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濟衆新編」 初刊本 B - 人蔘을 ‘삼’으로 표기

初刊本 A와 동일한 기준으로 卷8의 藥性歌 처음에 나오는 人蔘의 향약명 한글 표기가 ‘삼’으로 된 판본을 ‘初刊本 B’라 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初刊本 B라고 명명할 수 있는 「濟衆新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각각 한질씩 소장되어 있다. 실사결과, 같은 初刊本 B의 경우에도 <表 4>에서 나타나듯이 半郭의 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때문에 初刊本 B도 하나 이상의 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初刊本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半郭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 및 서체 등의 형태사항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차이점을 밝혔다. 먼저 半郭 크기를 실사한 결과는 <表 4>와 같다.

<表 4> 「濟衆新編」 初刊本 B의 판본별 半郭 크기 비교(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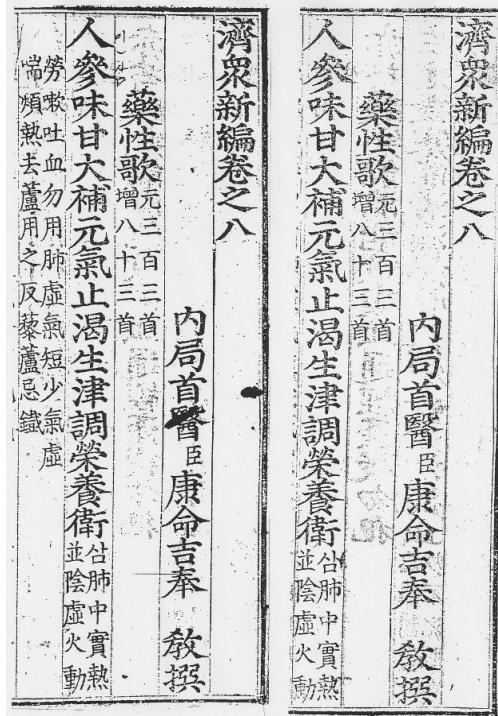
소장처	序1면	凡例	總目	引用諸方	目錄	卷1	卷7	卷8
① 국립중앙도서관 <sup>12)</sup>	228 ×167	242.5 ×166.5	240 ×166.5	240 ×166.5	233 ×166	233 ×165	237.5 ×164	234 ×165
② 규장각 <sup>13)</sup>	230 ×167	243.5 ×167	242.5 ×166.5	242.5 ×166.5	236.5 ×166.5	236.5 ×166.5	238 ×165	237 ×165.5

初刊本 B는 半郭의 차이가 적게는 0.5mm에서 많게는 3.5mm까지 차이가 났

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766-20.





1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一簣古 615.135.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첫째, 初刊本 A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면을 복사하여 동틀로 축소한 후 그 차이점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고 둘째, 글자크기와 서체의 차이점을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左)과 규장각 소장본(右)의 半郭 크기 비교

<表 4>의 차이를 근거로, 글자의 서체와 크기를 실사한 결과 初刊本 A의 경우와 동일하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구별되는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 ‘醫’의 서체 및 글자 크기		● ‘삼’의 서체 및 글자 크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그림 4> 「濟衆新編」 初刊本 B의 서체 및 글자크기 비교

<그림 4>에서 보는 ‘삼’의 경우 후에 덧붙인 획이 아닐까하여 뒷면을 비쳐보며 상세히 관찰하였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추후에 추가한 획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半郭의 크기를 통해 입증된 것과 동일한 결과로 글자의 서체와 크기를 분석한 결과도 初刊本 B에 해당하는 「濟衆新編」의 판본이 하나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濟衆新編」 初刊本の 간기는 1799년으로 동일하나, 그 半郭의 크기와 글씨 크기, 향약명의 한글표기가 상이한 판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무슨 이유에서 나타난 것일까? 여러 가지 사료와 관련기록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사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마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 몇 가지를 유추해 볼 따름이다.

첫째, 1799년 初刊本이 鑄字所 한 곳에서 板刻되어 인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板木의 造成이 이루어졌을 경우 둘째, 후대에 初刊本을 飜刻해서 인쇄하였을 경우 셋째,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수나 보정이 필요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판만을 새롭게 板刻하여 만들어 사용하였을 경우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 제시한 飜刻本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만약, 飜刻本이라면 그 판본의 크기와 글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사 결과 初刊本 A와 初刊本 B 각각의 그룹 내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세 번째, 「鑄字所應行節目」을 보면 초판 刊行 이후 鑄字所의 板木 관리가 소홀하여 164판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는 「濟衆新編」의 초간본

14) 「鑄字所應行節目」(純祖 13): 春秋黃筆四百五十七板 戊午造成 曹筆四百五十七板 己未

간행 시 조성한 판목 311편이 온전히 보관되지 않고 『鑄字所應行節目』의 기술시 이미 처음 조성된 板木의 절반인 147편이 사라졌는데 것을 의미한다.<sup>15)</sup> 이를 보충하여 인쇄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라면 『濟衆新編』의 初刊本은 최대 두 가지 판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사결과 그 半郭의 크기는 다양했다. 初刊本 A 그룹과 初刊本 B 그룹 내에서 조차 半郭의 크기와 글자의 서체와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현재까지의 조사와 분석에 의하면, 첫 번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濟衆新編』의 頒賜 記錄<sup>16)</sup>을 보면, 주로 宮內에 頒賜되었으며 지방에는 경기도 華城에만 頒賜되고 있다. 이는 『濟衆新編』 刊行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正祖가 수도권을 중시하였음<sup>17)</sup>은 주지의 사실이나, 궁벽한 곳에

- 
- 造成下送完營次 濟衆新編一百六十四板 己未造成出給典醫監 雅誦七十二板 己未造成.
- 15) 『內閣日曆』과 『日省錄』의 板木 造成 기록에 근거하면 311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濟衆新編』 初刊本의 실사를 통해 그 板木을 세어보니 표지를 제외한 본문만 314板이었고, 즉 『鑄字所應行節目』 기록된 鑄字所의 보관 板木과는 150여 板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鑄字所應行節目』의 작성 목적에도 나와져 있듯이 鑄字所가 所藏書籍, 冊版, 鑄字를 관리하는 곳이기는 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散失된 板木이 많았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鑄字所應行節目』이 편찬된 시기가 『濟衆新編』의 板木을 처음 造成한 때로부터 이미 3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인 데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板木의 절반가량이 이미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16) 先是, 命首醫康命吉, 廣取古今諸方, 刪繁取要, 撰定醫書, 書凡八編, 命名曰濟衆新編, 開印內閣, 至是進獻, 教曰, 新印濟衆新編 西庫三十一件內閣一件內局一件內局 三廳各一件華城行宮一件鄉校一件留守營一件貳衙一件原任直提學 領府事 金憲原任提學 左議政沈煥之 檢校提學 鄭民始原任直提學 金載瓚 徐鼎修 徐龍輔 鄭大容 直提學 李晚秀原任直閣 金勉柱 尹行恁 檢校直閣 徐榮輔原任直閣 南公轍 金祖淳 李始源 檢校 直閣 沈象奎 直閣 金近淳 檢校待教 李存秀原任待教 徐有渠 藥院都提調 判府事 李秉模 提調 金文淳 副提調 李集斗舊選抄啓文臣 李魯春 金羲淳 抄啓文臣 徐俊輔 曹錫中 李勉昇 柳台佐 洪樂浚 金熙洛 具得魯 宋冕載 姜浚欽 黃基天 金履載 李英發 李弘謙 洪夷周 金啓溫 洪命周監刻外閣官 洪儀泳 華城總制 柳文植 判官 金思義各頒一件(檢書官 柳得恭等十四人醫官康命吉等五十人各頒一件(正祖 23년 12월 11일 『日省錄』 / 『內閣日曆』에도 같은 내용이 전한다).
  - 17) 正祖代에는 奎章閣에서 간행되는 문헌을 화성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1794년 화성의 축성이 시작된 이래 정조 사망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1789년 생부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산으로 옮긴 후, 화성을 농업과 상공업이 함께하는 꿈의

사는 향리들도 쉽게 보고 이를 이용하기를 열망하여 책의 이름도 「濟衆新編」이라 명한 刊行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濟衆新編」은 鑄字所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刊行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鑄字所應行節目」에서 보듯 「春秋」板木 造成時 曹筆과 黃筆을 동시에 鑄造하여 刊行한 사실을 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또한, 「濟衆新編」의 板木을 造成하면서 동시에 「雅頌」의 板木을 造成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濟衆新編」의 초간본 조성 時 하나 이상의 板을 造成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는 「濟衆新編」의 간행목적인 향리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쉽게 접하고 이용하여 스스로 생명을 구하게 하겠다는 간행 의도와도 연결된다 하겠다. 이는 「濟衆新編」初刊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濟衆新編」의 板木이 하나 이상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증명하기 용이하지 않으며, 다만 현존하는 「濟衆新編」 초간본이 동일한 판본이 아니라는 것과 이에 대한 차이점 및 근거를 밝히었다.

## 2.2 鉛活字本

「濟衆新編」의 初刊本 刊行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8년 大東書院의 발행을 시작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鉛活字本 또는 縮刷影印本의 「濟衆新編」을 발행하였다. 연구범위 안에 있는 국내 발행의 「濟衆新編」 鉛活字本을 정리하면 <表 5>와 같다.

---

도시로 키우고자 노력한 정조의 뜻이기도 하였다(金良洙, “조선시대 醫員 實態와 지방관 진출,” 『東方學志』, 104(1999), 163-248 참조). 正祖는 궁과 수도권을 나라의 통치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로 인해 한양과 경기도에서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또 수도권을 중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옥자, 『朝鮮後記 歷史의 理解』, (서울: 일지사, 1998)와 김문식, “正祖의 華城 경영과 문헌배포,” 『奎章閣』, 23(2000), 89-111 참조).

<表 5> 鉛活字本 「濟衆新編」 현존 현황

서명	저자	형태사항	발행처	년도	판종	대표소장기관
濟衆新編	康命吉(朝鮮) 奉教纂	8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6×12.5cm, 13行25字 : 23.4×15.5cm	大東書院	1918	鉛活字本	성대 존경각 고려대
濟衆新編	康命吉(朝鮮) 奉教纂	8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5×12.4cm, 13行25字 :	廣韓書林	1925(초판) 1935(재판)	鉛活字本	충남대 등
濟衆新編	康命吉(朝鮮) 奉教纂	8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5×12.4cm, 無界	盛文堂書店	1935	鉛活字本	전주대

이외에 국내에서는 축소 영인하거나 동을 影印 또는 옅색 활자본 등 계속해서 「濟衆新編」을 발행하고 있다.<sup>18)</sup> 鉛活字本을 분석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5년 발행의 鉛活字本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1918년 발행본과 1935년 발행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2.1 1918年 發行本

大東書院에서 刊行된 1918년 鉛活字本은 「濟衆新編」 최초의 鉛活字本이다. 일제강점기에는 1918년판 大東書院의 「濟衆新編」 발행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鉛活字本이 발행되는데 이와 같은 원인을 醫史學的 측면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隆熙 4)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장악하고 국민의 의료와 보건정책을 書醫 일변도로 이끌어가기 위해 韓醫를 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실상이 아직 書醫의 배출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시설도 확충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토속적인 한의들을 이용하

18) 해방이후 발행본을 살펴보면 1962년 新告社에서 발행한 것이 있으며, 杏林書院에서는 1965년, 1972년, 1975년, 1982년 계속해서 발행하였다. 이어 1968년에는 通文館과 북한의 평양의학출판사에서도 발행하였다. 여강출판사에는 1985년, 1988년, 1992년까지 축쇄영인과 국역을 합쳐 발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학민사에서 東藏本(1:1)으로 影印本을 발행한 바 있다.

지 않을 수 없었다. 공여지책으로 ‘醫生制度’라는 모호한 법을 1914년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이후 일본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계기로 內鮮一體를 내세워 유효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1922년 서울을 중심으로 한의계 유지들이 東西醫學研究會<sup>19)</sup>를 조직하였다. 韓醫의 후진양성 기관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의계는 부속의학강습원을 세우고 강습원을 개설하였다.<sup>20)</sup>

때문에 한의계는 교육과 진료행위에 적합한 의학적서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는 書醫에 대항하고 본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시 「濟衆新編」이 교육과 실용성 측면을 모두 갖춘 서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東醫寶鑑」은 한의계에서 경전처럼 여기는 문헌이나 25권25책이란 분량은 너무 방대하였으며, 당시의 탄압과 박해 속에 생존을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던 한의사들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반해 「濟衆新編」은 짧게 病症과 脈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 處方을 제시하는 체제였으니 적합하였을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은 1925년과 이어 1935년에도 계속해서 「濟衆新編」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1918년 大東書院 발행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sup>21)</sup>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18년 大東書院 발행본을 실사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존경각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18년 大東書院 발행의 「濟衆新編」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사하여보니, 판권에 1918년(大正 7) 5월 7일 발행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고, 總發行兼發賣所에 大東書院·新舊書林이, 分賣所에 光東書局이라 인쇄되어 있다. 순서도 동일하게 序, 凡例, 總目, 引用諸方, 目錄이 차례로 이어지고, 이어 「濟衆新編」 卷之一의 본문이 시작되며 총 166페이지에 걸쳐 권8의 藥性歌까지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166페이지의 뒷면에 발문이 있다. 고려대 소장본은 책등이 녹색 물을 들인 천으로

19)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정책: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大韓醫史學會誌』, 통권23호(2003. 12), 110-128.

20) 김기욱 외 13인 공저,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455-519.

21) 고려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에 1928년 大東書院 발행의 「濟衆新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대 한적실에서 실사한 결과 이는 大正 7년을 표기하면서 생긴 표기의 오류로 보이며, 실제 현존하는 1928년 大東書院 발행의 「濟衆新編」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감싸져 있으며 붉은 실에 의해 4침으로 꿰매있다. 卷8의 藥性歌는 初刊本과 동일하게 실려 있지만 향약명의 한글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人蔘은 '삼'으로 梔子は '치자'라고 표기되어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글표기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었다.

1918년 大東書院 발행의 『濟衆新編』 실사 결과를 정리하면, 이 판본은 鉛活字로 인쇄되었으며 전체의 체제나 기술방식이 초판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책의 제본방식은 洋裝이 아닌 東裝本の 제책 방식으로 四針으로 꿰매 있다. 初刊本과의 차이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卷8 藥性歌의 향약명 한글표기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 2.2.2 1935年 發行本

日帝強占期 韓醫界의 일련의 노력과 자구책은 지방에서도 이루어져, 醫學講習이 개최되고 藥令市가 개설되는 등 활동이 활발했다. 이후 한의학 부흥운동이 전개되며 1934년 10월 東西醫學研究會는 서울에서 다시 振興大會를 열고 세력을 강화하여 韓醫의 진흥을 다짐하게 된다.<sup>22)</sup>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濟衆新編』을 발행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 듯 1935년 두 곳의 출판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濟衆新編』을 발행하였으며 廣韓書林과 盛文堂書店 발행본이 현존하여 전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35년 廣韓書林 발행의 『濟衆新編』은 鉛活字本이면서 동장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8卷1冊으로 初刊本の 木板과 유사한 형식으로 주석 부분도 원본처럼 註雙行의 형식을 그대로 취했으며 線裝의 제본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1918년 大東書院 발행의 『濟衆新編』과 동일한 형식이다. 無界이지만 四周單邊의 匡郭을 만들고 13行25字에 어미가 있다. 半郭의 크기는 18.5×12.4cm이며, 紙質은 洋紙이며 序는 원본과 동일하게 '上之二十三年己未(1799)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臣李秉模奉教謹序'라 되어있고 맨 끝에 康命吉의

22) 김기욱 외 13인 공저, 『韓醫學通史』(서울: 대성의학사, 2006), 455-559.

跋文이 있다.

初刊本과의 내용상 차이점은 권8의 藥性歌에 표기된 향약명의 한글표기의 변화이다. 앞서 살펴본 1918년 大東書院 발행의 「濟衆新編」과는 또 다르게 그 시대에 통용되는 한글표기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918년 大東書院 발행본과 1935년 廣韓書林 발행본 중 藥性歌의 향약명 한글표기에 변화가 있는 것이 48개 발견되었다. 이는 시대에 변화에 따른 한글표기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初刊本에 존재하는 ‘자하차’와 ‘동변’이 1935년 廣韓書林 발행본 藥性歌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약제에 대한 현실감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지만 편집자의 실수로 놓쳤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935년의 또 다른 판본인 盛文堂書店本에서는 이 두 가지가 藥性歌에서 모두 보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1935년 盛文堂書店에서 발행한 鉛活字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중인 1935년 盛文堂書店 발행의 「濟衆新編」은 鉛活字本이면서 東裝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無界이며 주석 부분은 初刊本과 같은 註雙行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고 線裝의 제본 형식을 갖추고 있다. 無界이지만 四周單邊의 匡郭을 만들고 어미가 있다. 序, 凡例, 總目, 引用諸方, 本文, 藥性歌, 跋文 등 체제는 初刊本과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문과 동일하게 맨 마지막에 ‘上之二十三年己未(1799)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臣李秉模奉教謹序’라는 康命吉의 발문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濟衆新編」 鉛活字本의 발행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압 속에서도 한의학의 교육과 실제 임상에서 「濟衆新編」이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 3. 中國 板本

중국은 1799년 初刊本 刊行 이후 계속해서 朝鮮에 「濟衆新編」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중국에 유입된 『濟衆新編』만도 수십 질에 달한다.<sup>23)</sup> 뿐만 아니라 중국은 淸나라 시기인 1817년(淸, 嘉慶 22)과 1851년(淸, 咸豐 1) 『濟衆新編』을 木版本으로 刊行한다. 이는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출판된 발행처가 명확한 坊刻本이다. 坊刻本이란 營利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의 한 형태로 『濟衆新編』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板刻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中國中醫古籍總目』을 보면, 현존하는 『濟衆新編』은 淸板보다 朝鮮板 初刊本이 훨씬 더 많이 전하고 있다. 1799년 刊行된 조선의 初刊本은 北京을 포함한 7개 지역 16개 도서관에 한 질 이상씩 전하고 있는 반면, 淸판인 1817년 經國堂刻本과 1851년 秋水書屋刻本은 중국 전체를 살펴봐도 각각 네 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외교사절에 의해 전해진 朝鮮板 初刊本은 중국의 국가기관에 주로 보관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관리와 보존이 잘 이루어졌을 것이다. 반면, 淸판은 일반 대중들이 실제 진료 행위를 할 때 이용되어 관리에 소홀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조선의 木版本은 楮紙로 그 수명이 오래인데 비해, 중국의 종이는 楮紙에 비해 훨씬 약하고 그 수명이 짧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濟衆新編』의 刊行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현존하는 중국판 『濟衆新編』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中國中醫古籍總目』을 기초로 국내·외 도서관 사이트를 참고해서 연도별로 정리하여 대표 소장처를 살펴보면 <表 6>과 같다.

---

23) 『儀禮總覽』과 『日省錄』,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는 1799년 초판 刊行 직후인 1800년부터 계속해서 수십 년간 『濟衆新編』을 요청하고 있으며 실제 값을 치르고 구매해 가기도 하였는데 그 값이 七錢 五分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중국 측 使臣의 왕래 시 계속되는 『濟衆新編』의 요구는 『日省錄』의 기록만을 보더라도 그 횟수가 무려 11회에 이르며, 일본 측의 요구도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修信使日記』에 나타나 있다.

<表 6> 「濟衆新編」의 中國 刊本 및 筆寫本 소장현황

번호	서명 (권책)	저자	발행처	발행년	판종	대표소장기관 및 지역
1	濟衆新編 (8卷5책)	康命吉(朝鮮) 奉教纂	經國堂刻本	嘉慶 22年 丁丑(1817)	木板本	· 長春中醫藥大學書館(長春) · 南京圖書館(南京) · 蘇州市中醫醫院圖書館(蘇州) · 福建省圖書館(福州)
						· 고려대학교 도서관 · 연세대학교 도서관 · 계명대학교 도서관
2	濟衆新編 (8卷5책)	康命吉(朝鮮) 奉教纂	秋水書屋刻本	咸豐 1年 辛亥(1851)	木板本	· 中國中醫科學院圖書館(北京) · 吉林大學自求恩醫學部圖書館 (長春) · 南京圖書館(南京) · 湖南中醫藥大學圖書館(長沙)
3	濟衆新編	康命吉(朝鮮) 奉教纂		清祖년간	筆寫本	· 中國中醫科學院圖書館(北京) · 蘇州醫學院圖書館(蘇州)

<表 6>을 보면, 중국에서 「濟衆新編」이 처음 刊行된 것은 清代인 1817년이며, 1851년에 두 번째 木板本이 刊行된다. 이처럼 「濟衆新編」이 중국에 전해져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두 번이나 刊行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당시 우리의 의학문헌이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중국 내 조선 의서의 수입이 중국인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를 출판문화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清代에 이미 坊刻本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또한 중국은 근래까지도 「濟衆新編」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1983년, 1994년, 2004년, 2007년의 발행 기록이 있다.<sup>25)</sup>

24) 중국은 宋代(960~1279)에 坊刻本이 처음 출현하게 되며, 清代에는 성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서울: 혜안, 1997), 271 참조).

25) 1983年 中醫古籍出版社(北京)에서 朝鮮內閣刻本을 影印하여 발행, 1994년에는 中醫古籍出版社(北京)에서 中國醫學科學院圖書館館藏善本醫書, 13으로 影印本 발행, 2004年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에서는 「中國古代醫方眞本秘本全集」(民國時期海外藏方卷. 30)에 影印本을, 2005년에는 延邊人民出版社에서 朴志賢 主校釋本인 「濟衆新編校釋」(國家中醫藥管理局民族醫藥文獻整理叢書)을 발행하였다. 2007년에는 中醫古籍出版社(北京)

중국 판본 『濟衆新編』의 분석에 있어서도 연구범위를 적용하여 淸나라에서 刊行된 木版本 2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밝혔다.

### 3.1 經國堂刻本

淸나라에서 1817년에 刊行된 經國堂刻本 『濟衆新編』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長春中醫藥大學書館(長春), 南京圖書館(南京), 蘇州市中醫醫院圖書館(蘇州), 福建省圖書館(福州) 등 중국의 네 개 지역 네 개 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經國堂刻本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현재 고려대학교, 계명대학교,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각 도서관별로 소장 판본의 상세서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책이 분명하다.<sup>26)</sup> 다만 도서관마다 이를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sup>27)</sup> 半郭의 크기와 책의 크기에서도 작은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는 측정된 사람의 개인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817년 經國堂에서 刊行한 木版本은 坊刻本이다. 8卷5冊으로 序, 凡例, 總目, 引用諸方, 目錄, 卷之一~卷之八, 跋文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에서 刊行된 初刊本과 그 체제가 같고 그 면면을 살펴보니, 본문의 행자의 수도 같고 그 내용 또한 동일하다.

東裝으로 흰색실 2겹으로 4針이 되어있는 중국판본이다. 四周雙邊, 半郭 200×135m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黑魚尾이며, 크기는 298×180mm다. 속표지에 縱으로 『濟衆新編』이라 기록되어 있다. 표지의 왼쪽 아래쪽에는 仁, 義, 禮, 智, 信이라는 체례가 기록되어 있다. 표지에는 체례와 함께 총목이 오른쪽으로

---

에서 『濟衆新編釋』을 발행하였는데, 그 編纂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原文】이라 표기한 뒤 『濟衆新編』 원문 그대로를 실고 있고 그 아래에 【語釋】이라 표시하고 『濟衆新編』 원문을 중국 현대어로 실고 있고 다시 그 아래에 【詞解】라 표기한 뒤 각각의 病症, 處方, 引用書籍, 用語 등에 대하여 일일이 번호를 달고 상세히 주석을 붙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지 못한 編纂방식으로 중국은 현재까지도 『濟衆新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현대 중의학에서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고려대 소장본과 연세대 소장본은 실사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계명대 소장본은 계명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으로 실사를 대신하였다.

27) 연세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발행사항에서 京都를 日本이라고 표기하면서 청판인 經國堂刻本을 日本의 木版本으로 잘못 기재한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縱으로 기록되어 있다. 仁 1책에는 序, 凡例, 總目, 引用諸方, 目錄이, 義 1책에는 권1-2, 禮 1책에는 권3-4, 智 1책에는 권5-6, 信 1책에는 권7-8이 수록되어 있어 初刊本과 그 편제가 같다. 겉표지를 넘기면 판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속표제지가 있어 발행사항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형적인 坊刻本으로 『濟衆新編』 ‘嘉慶丁丑年 京都經國堂藏板’이라 인쇄되어 있다.

卷8의 藥性歌에 나타난 약재의 향약명 한글표기가 흥미롭다. 『濟衆新編』 초간본 藥性歌에는 275종의 약재에 대해 향약명이 한글로 붙어있는데, 淸板 經國堂 刻本에도 조선의 初刊本과 동일하게 약재의 향약명 한글표기가 나타나 있다. 한글의 서체 또한 조선에서 刊行된 初刊本과 흡사하게 표기되어 있다. 人蔘은 ‘심’으로 표기되어 있고 치자도 ‘지지’라 표기되어 있어 初刊本 A를 底本으로 板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新增 부분도 初刊本과 같이 오증어부터 되어있고, 朝鮮板 初刊本과 동일하게 唐材 역시 ‘唐’이라 표시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향약의 한글표기가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중국에 한글의 해독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濟衆新編』을 필요로 하는 중국인들에게 조선의 것과 똑같은 책을 만들어 공급해 주는 것이 수요자의 요구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한다.

### 3.2 秋水書屋刻本

1851년(咸豐 1) 간행된 秋水書屋刻本 『濟衆新編』은 18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刊行된 중국 淸나라의 木版本이다. 이 木版本은 우리나라 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 내에는 中國中醫科學院圖書館(北京), 吉林大學自求恩醫學部圖書館(長春), 南京圖書館(南京), 湖南中醫藥大學圖書館(長沙) 등 네 개 지역 네 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經國堂 板本과 같이 8권5책의 木版本으로 발행처가 분명히 坊刻本이다. 실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 판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秋水書屋刻本은 선명한 노란색 표지의 東裝에 4針으로 제본된 중국 淸판의 형태이다. 四周雙邊,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黑魚尾로 經國堂本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初刊本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행자 수와 그 면면이 모두 일치한다. 序, 凡例, 總目, 引用諸方, 目錄, 卷之一 ~ 卷之八, 跋文 순으로 그 체제도 동일하다. 표지에는 「濟衆新編」이라고 중국 간자로 필사되어 있다. 표지를 넘기면 속표제지가 판권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 판권사항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형적인 坊刻本으로 「豐元年春鏤 秋水書屋藏板」이라 인쇄되어 있다.

秋水書屋刻本에도 1817년 판과 동일하게 초간본에 있는 권8의 藥性歌에 실린 藥材의 향약명이 한글로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한글의 서체는 初刊本과 비슷하기는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初刊本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淸板에 수록된 「濟衆新編」의 한글은 朝鮮板 「濟衆新編」을 복각한 한글이 아니라 누군가 새로 쓰고 그것을 板刻한 것으로 보인다. 人蔘은 ‘심’으로 표기되어 있고 梔子도 ‘지지’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初刊本 A를 저본으로 板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濟衆新編」은 중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많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결 론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단점을 극복하고 향리에서도 백성들이 쉽게 이용하고 실제 의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 간행된 관찬의서다. 이 문헌은 조선후기 의학문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藥性歌 수록의 효시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의학문헌이다. 또한 이 문헌은 正祖의 의학사상과 조선후기 의료정책과 醫療史의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 문헌이다.

「濟衆新編」의 現存本을 분석하기 위하여, 國內 板本과 中國 板本으로 구분하여 각 板本별로 그 서지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實查하여 考證하고 그 特性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國內 板本을 실시한 바, 刊記가 1799년으로 같은 初刊本이지만 半郭의 크기와 글자크기, 한글표기 등 그 형태사항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도서관 소장본을 실시하여 OHP필름으로 복사하고 각 板本별로 半郭의 크기와 글자크기 등의 형태사항을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板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濟衆新編」의 간행 기록은 1799년 한 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現存하는 初刊本의 실사 결과 조선에서는 하나 이상의 「濟衆新編」 板木이 造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初刊本에 실린 향약명의 한글표기로 初刊本 A와 初刊本 B로 나누어 구별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半郭의 크기, 글자의 크기와 모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後刷本이나 飜刻本이 존재할 가능성보다 鑄字所 이외에 제3의 장소에서 다른 板本을 造成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이를 근거할 만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실사를 통해 차이가 분명해 異本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였다.

「濟衆新編」 연화자본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大東書院 발행을 시작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탄압 속에서도 한의학의 교육과 실제 임상에서 「濟衆新編」이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鉛活字本이면서 東裝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序, 凡例, 總目, 引用諸方, 本文, 藥性歌, 跋文 등 체제는 初刊本과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문과 동일하게 康命吉의 발문이 있다. 초간본과 다른 점은 약재의 향약명 한글표기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濟衆新編」의 中國 板本은 清代인 1817년과 1851년 두 차례에 걸쳐 木版本으로 발행되었다. 이때에 刊行되는 木版本은 坊刻本이며, 初刊本에 있는 약재의 향약명 한글 표기가 淸版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은 外交使節 往來時 「濟衆新編」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때문에 조선의 초간본이 현재까지도 많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濟衆新編」은 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의학문헌이며, 중국에서도 두 번이나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이용되어

진 문헌이다. 또한 『濟衆新編』은 조선후기 의학문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정조임금의 의료정책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문헌이다.

## <참고문헌>

### 1. 원서류

- 『濟衆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濟衆新編』.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濟衆新編』. 고려대학교 소장본.  
『濟衆新編』. 성대 존경각 소장본.  
『濟衆新編』.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濟衆新編』. 충남대학교 소장본.

### 2. 단행본

-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여강출판사, 1988.  
김기욱 외 15명 공저.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薛清泉 主編. 『中國中醫古籍總目』.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서울: 혜안, 1997.  
정옥자 외. 『正祖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 돌베개, 1999.  
정옥자. 『朝鮮後期 歷史의 理解』. 서울: 일지사, 1998.  
정조임금 저·신승운 역. 『국역 홍재전서 1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3. 논문

- 신동원. “조선 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大韓醫史學會誌』 통권23호(2003. 12). 110-128.  
이정화. “『濟衆新編』의 刊行과 頒賜에 관한 연구.” 『書誌學報』 통권34호(2009.

12). 131-153.

지창영.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0.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3.

#### 4. 전자자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고전종합DB.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jsp>>.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